

# 이지훈 “믿고보는 배우로 인정받고 싶어”



### 뮤지컬 '모차르트!' 출연... 극 이끌어 데뷔 20년차... 선물같은 앨범 준비 중

얼굴을 하고 있었다. “캐릭터에 열망이 있었어요. 과거 ‘꽃미남’이라는 수식어로 의도만 주목받다 보니, 정작 제가 하고 싶은 것을 못했거든요.” 가수에서 드라마·영화 배우로 활동 반경을 넓히기 시작했을 때조차도 대기업 실장, 교사 등 그의 이미지에 기반한 작품들의 섭외가 줄을 이었다. “이런 캐릭터에서 벗어날 수 없나라는 고민을 했어요. 드라마나 영화는 보증되지 않은 이미지에는 잘 도전하지 않게 됐는데 뮤지컬에서는 감사하게도 그런 이미지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출연 중인 라이선스 뮤지컬 ‘모차르트!’(극작 미하엘 쿤체·작곡 실베스터 르베이·제작 EMK뮤지컬컴퍼니)는 이지훈의 또 다른 측면을 조명한다.

2010년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초연 이후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한 작품으로, 천재적인 재능을 지닌 모차르트의 내적·외적 갈등과 고민을 다룬다.

이지훈이 맡은 모차르트는 10대에는 천방지축·자유분방한 캐릭터이나 점차 음악가를 넘어서 자신이 원하는 걸 열망하는 인간으로서의 정체성에 대해 고민하는

캐릭터다. 그 과정에서 아버지 ‘레오폴트’, 폴로레도 주교 등 자신을 억압하는 주변 인물들로 힘들어한다.

“저 역시 모차르트처럼 어려울 때는 객기도 부렸어요. 누군가에 이끌림을 받는 상황에서 제가 해보고 싶은 것보다 타의에 의해 하는 것이 많았죠. 상품으로 포장되면서 도망가고 싶은 적도 있었고 결국에는 제일하고 싶었는데 뮤지컬을 만나게 된 거예요.”

2006년 ‘알타보이즈’로 뮤지컬에 데뷔한 이지훈은 이 장르를 만나면서 몰랐던 것을 섭렵하고 공부하면서 자신을 원하는대로 만들어가기 시작했다고 털어놓았다.

“뮤지컬을 하면서 예전에 없던 감금함과 절박함이 생겼어요. 가수로 데뷔했을 때는 좋은 회사에서 좋은 분들과 좋은 인프라로 승승장구했으니 그런 것이 없었죠. 제 분야에서 갈고 닦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꼈던 거죠. 소비하는 20대를 보낸 겁니다.”

하지만 공연을 만나면서 달라졌다고 했다. 정해진 시간 안에 연습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만들어가는 과정이 초반에는 낯설었지만 점차 익숙해지면서 자신 스스로

달라져가는 걸 느꼈기 때문이다.

1996년 ‘왜 하늘은’으로 데뷔한 지 어느덧 20주년. 절반가량인 10년을 뮤지컬 배우로 산 이지훈은 “이제 더 좋은 공연을 보고, 더 준비를 하게 되면서 어제 공연 때보다 조금이라도 성장해나갈 수 있다는 걸 믿는다”고 말했다.

40대에 목소리가 절정이 된다는 주변 이야기 역시 굳게 믿고 있다. 지난해 말 MBC TV ‘일밤 - 복면가왕’에서 ‘나를 따라라 김장군’이라는 가명으로 새삼 가창력도 뽑낸 그는 “가수였을 때는 색깔이 없었다”고 고백했다.

“음색이 짙거나 박효신처럼 색깔이 강한 발라드 가수가 아니었죠. 하지만 뮤지컬을 하면서 점차 나만의 음색을 만들어가는 중이에요. 가수만 했을 때는 공부 안 했던 티가 난 거죠. 하하.”

한껏 여유로워진 이지훈은 9월 2일 블루스퀘어 삼성전자홀에서 개막하는 뮤지컬 ‘킹키부츠’에서 파산 위기에 빠진 구두공장을 물려받은 찰리를 연기하는 등 계속 스펙트럼을 넓히는 중이다.

데뷔 20주년인 만큼 팬들을 위한 선물같은 앨범도 준비하고 있다. “‘모차르트!’로 낯가림도 배우로서 가능성을 인정받고 싶어요. 이지훈이면 무슨 캐릭터든 믿고 볼 수 있는 배우로 확인받아 나가야겠죠.” 8월7일까지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1577-6478 /김민근 기자



### ‘늘근도독이야기’ 김제 오다 내일 문화예술회관에서 공연

국가대표 시시코미디 연극 늘근도독이야기가 오는 15일 오후 7시 30분 김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으로 찾아 온다.

이번 공연은 늘근도독들이 미술관에 들어와 마치 관객들을 인물화로 묘사하고 관객과 호흡하는 배우들의 열정과 웃음을 만들어 주는 공간을 연출하며 특히 공연 중 박철민씨의 능청스러운 애드립을 보며 ‘애드립의 신’이라는 말이 과언이 아닐 정도로 재미난 무대를 펼칠 것이다.

이번 연극을 통해 현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사회문제를 한번 더 되짚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한편, 출연진으로는 늘근도독 역 노진원, 달 늘근도독 역 박철민, 수사관 역 이호연 등이 출연하여 엄청난 내공으로 호흡을 맞춰가며 이야기를 펼칠 예정이며 요즘 웃을 일 없어 힘들었던 시민들에게 이번 공연을 통해 웃으며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 나무와 돌 융합 ‘권성수 개인전’

도립미술관서 18일까지

권성수 조각가의 개인전 ‘거기에 머물다’가 전북도립미술관 서울관에서 오는 18일까지 열린다.

이번 작품에서 작가는 차가운 돌과 따뜻한 감성을 담고 있는 나무를 자유롭게 드로잉 하듯 피어오른 유연한 선의 형상을 표현한다.

전시작은 이질적인 나무와 돌을 융합시키는 일련의 조형적 실험으로 각각의 고유한 매력을 발산한다. 이들 작품들은 조각이지만 마치 드로잉처럼 표현되며, 선들이 공존하는 동시에 섬세한 느낌 차이를 펼쳐

보인다.

작가는 “전시 공간에서 마주한 작품과 선의 이미지들을 통해 관람객은 의식을 확장한다.”며 “외곽같은 작품감상은 현재의 시간에서 과거의 기억으로 연결되고, 이는 관람객들의 작품감상에 대한 경험치를 쌓는 것이다”라고 보았다.

이러한 것이 작가의 작업이 가지는 본질적 요소인, 무한한 공간성과 초월적 시간성이다.

그는 “작품의 형을 구축하거나 감정을 재현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공간을 재해석 할 때 가장 강력한 에너지가 갖는다”라고 말한다. /정해은 기자

## 전주한지, 세계 문화유산 복원 사용 ‘주목’

### 이탈리아 종이 보존 전문가 제작 현장 살펴

천년명품 전주한지가 세계 문화유산 복원에 사용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이탈리아 국립도서병리화학연구소 소장인 마리아 레티자야 세바스티아니를 비롯한 이탈리아 종이 보존 전문가들이 지난 13일 전주를 찾아 전주의 전통종이 제작 현장을 살폈다.

이들 방문단은 키아라 포르나치아리 다 파시노 바티칸박물관 지류복원 팀장, 벨라포지 지류 보존 스튜디오 대표, 이탈리아 문화재 복원·보존 연구기관인 도서병리화학연구소의 투칠라 누체렐리 복원연구실장 등 지류 복원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다.

전담 방문에 앞서 키아라 포르나치아리 다 파시노 팀장은 한지를 이용해 19세기 그림을 복원한 사례, 벨라포지 대표는 교황 요한 23세 지구본 보존처리 과정, 투칠라 누체렐리 실장은 복원재료로서 한지 사용의 가능성을 심포지엄을 통해 전망하는 등 한지의 사용 가능성을 언급했다.

전담 한지산업지원센터는 이들 방문단에게 “천년을 가는 종이” 전주 전통한지의 우수성을 물론 전통방식의 전주한지 제작 현장 소개, 전주한지 특성 등 전주한지가 세계 문화유산 복원에 있어 최적의 재료임을 홍보했다.

김동철 한국전통문화전당 원장은 “이탈리아 종이 보존 전문가들에게 보존용지로서의 전주한지를 소개함으로써 전주한지의 해외진출 가능성을 여는 기회로 삼을

계획”이라며 “우수한 전주의 한지가 다양한 세계 문화유산 복원에 사용될 수 있기를 손꼽아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해은 기자

**정명훈, 7개월만에 귀국 “진실 밝혀질 날 왔다”**

검찰과 경찰 출석을 앞둔 정명훈(63) 전 서울시향 예술감독이 13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지난해 말 서울시향 예술감독 직을 내려놓고 한국을 떠난 지 약 7개월 만이다.

위아래 흰색으로 웃을 차려 입은 정 전 감독은 대기하고 있던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내자 곤혹스런 표정을 지었다. 그는 “진실이 밝혀질 날 왔다”고 말했다. 오랜 비행으로 피곤한 기색이 있었으나 한국에 오랜만에 와서 반갑다며 웃음을 보이기도 했다.

검찰과 경찰의 조사를 받는 입장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한편 정 전 감독은 8월18일 롯데콘서트홀 개관 무대인 서울시향 공연을 지휘한다. 지난해 12월 30일 서울시향 송년 대표 레퍼토리인 베토벤 교향곡 9번 ‘합창’ 이후 정 전 감독과 서울시향이 8개월 만에 호흡을 맞추는 자리다. /김민근 기자

## 내일 군산은파호수공원에서 ‘우리가락 우리마당’ 공연

군산 시민들과 함께하는 ‘찾아가는 우리가락 우리마당’ 공연이 오는 15일 저녁 8시 은파호수공원 물밭다리광장에서 펼친다.

사)전통문화마을예술단체가 주관하는 이 공연은 그동안 전북도청을 중심으로 공연해 왔으나 자치단체를 직접 찾아가 우리가락 우리마당의 흥겨움을 더욱 많은 시민들에게 전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공연은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소담 김금희&소리아트의 새터링, 동백터링, 청부터링 판소리와 진포문화예술원의 채상, 소고놀이 등이 펼쳐지며, 신진 국악인 공모에 선정된 이생강류 대금산조 재민씨의 무대가 펼쳐진다.

공연을 통해 전통문화 예술을 기반으로 하는 공연 단체들의 활동을 지원, 보다 수준 높은 공연을 선보이는 등 시민들에게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군산=문정곤 기자

홍주미 백운철학연구소 소장 H.P: 010-6890-1468, 홈페이지: http://www.philsilab.com/				〈2016년 7월 14일〉			
<p><b>▷쥐띠</b></p> <p>46년생: 움직이던 좋은 일이 생기는 운이다.</p> <p>60년생: 손아래사람으로 인해 근심할 일이 생기는 운.</p> <p>72년생: 천운이 따르니 하고자 하는 일에도 좋은 결실을 맺는 운이다.</p> <p>84년생: 이성을 조심하지 않으면 구설수에 휘말리니 주의하라.</p>	<p><b>▷소띠</b></p> <p>49년생: 뒷심을 잃지 말고 마지막에 마무리를 잘해야.</p> <p>61년생: 자기 것이 아니면 욕심내지 말라.</p> <p>73년생: 중요한 물건을 잃어버리거나 손재수가 따르는 운이니 금전과 소지품 관리에 유의하라.</p> <p>85년생: 정신적으로 소모가 많은 운이다.</p>	<p><b>▷호랑이띠</b></p> <p>50년생: 좋은 기운이 가뭄으로 향하니 집안에 화기가 돌면서 경사가 따르는 운이다.</p> <p>62년생: 적극적으로 움직여라.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p> <p>74년생: 말로 인한 화를 주의하라.</p> <p>86년생: 먼저 배틀고 덕을 쌓아라.</p>	<p><b>▷토끼띠</b></p> <p>51년생: 예상보다 좋은 결실을 맺게 되는 길운.</p> <p>63년생: 천운이 따르는 운이니 겸손해야.</p> <p>75년생: 정신적으로 놀랄 일이 생기니 매사에 주의를 기울이고 경계하는 것이 상책이다.</p> <p>87년생: 서두르려고 해서 해결되는 일이 아니다.</p>				
<p><b>▷용띠</b></p> <p>52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방해하는 사람이 생기는 운.</p> <p>64년생: 다른 사람으로 인해 성기신 일들이 발생.</p> <p>76년생: 빛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 쉽게 해결할 수 있겠다.</p> <p>88년생: 의욕이 앞서서 운이나 빛 사람에게 실수 할 수 있으니 주의하라.</p>	<p><b>▷뱀띠</b></p> <p>53년생: 중요한 약속은 점심시간을 활용하라.</p> <p>65년생: 성심을 베풀면 좋은 일이 생기는 운.</p> <p>77년생: 도움을 받기 어려운 일이나 혼자서 묵묵히 해결해야.</p> <p>89년생: 눈앞의 결실을 비라고 행동하지 말고 크게 생각하고 행동하라.</p>	<p><b>▷말띠</b></p> <p>54년생: 금전으로 인해 고민할 일이 생긴다.</p> <p>66년생: 연장자의 귀인이 나타나는 운이다.</p> <p>78년생: 작은 일에 대해서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운이다.</p> <p>90년생: 이성운이 좋아지는 때다.</p>	<p><b>▷양띠</b></p> <p>55년생: 대인관계, 외부적인 상황, 내부적인 상황이 전반적으로 막혀 있으니 조심하라.</p> <p>67년생: 문서를 주고받기에는 좋은 운.</p> <p>79년생: 건강에 주의하라.</p> <p>91년생: 타인과 대립하지 말고 우회적으로 해결하면 좋은 결과가 있다.</p>				
<p><b>▷원숭이띠</b></p> <p>56년생: 문서운이 들어왔다.</p> <p>68년생: 작은 일은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다.</p> <p>80년생: 남자는 여자로 인해서 일이 성사되니 동행하면 길하리라.</p> <p>92년생: 시비수가 따르는 운.</p>	<p><b>▷닭띠</b></p> <p>57년생: 모든 일은 내부에서 일어나니 일을 크게 벌이지 말고 내부에 집중하는 것이 좋겠다.</p> <p>69년생: 지나친 욕심은 화를 부른다.</p> <p>81년생: 사활으로 인해 마음상할 일이 생기는 운.</p> <p>93년생: 원행은 불리하다.</p>	<p><b>▷개띠</b></p> <p>46년생: 정확한 판단을 하기 어려울 때에는 잠시 시간을 가지고 생각해보는 것이 좋겠다.</p> <p>58년생: 경거망동하면 후회할 일이 생긴다.</p> <p>70년생: 동기간과 일을 도모하면 돈 잃고 사람 잃는 운.</p> <p>82년생: 뒷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운이다.</p>	<p><b>▷돼지띠</b></p> <p>47년생: 소홀했던 사람과의 관계회복에 힘쓰라.</p> <p>59년생: 내실을 다지고 마음을 정비하는 시간으로 보내라.</p> <p>71년생: 금전운이 불리하다.</p> <p>83년생: 뒷사람의 도움이 따르니 위험천만 실태라가 풀리는 운이다.</p>				